

**열반의 진리 - 법신, 반야, 해탈**

## ▶ 1. 이자삼점의 의미

伊者佛法(이자불법) '이'라는 글자는 불법이다.

微妙甚深難得(미묘심심난득) 미묘하고 깊고 깊어서 얻기가 어려운 것이

如自在天大梵天王(여자재천대범천왕) 마치 자재천과 대범천왕의 법을 자재라고 하는 것과 같으며,

法名自在若能持者則名護法(법명자재약능지자즉명호법) 불법에서 자재라고 이름하였듯이 만일 이것을 보호하면 법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며,

又自在者名四護世(우자재자명사호세) 또 자재라는 것이 사방에서 중생을 지키는 사천왕이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是四自在則能攝護大涅槃經(시사자재즉능섭호대열반경) 이 네 가지 자재하는 이는 대반열반경을 거두어 지니고 보호할 수 있으며,

亦能自在敷揚宣說(역능자재부양선설) 또한 자재롭게 선전을 하고 설법을 펼칠 수 있다.

▶ 又復伊者能爲衆生自在說法(우부이자능위중생자배설법) 또 이자는 중생을 자재롭게 하기 위해서 설법을 할 수 있다.

復次伊者爲自在故說何等是也(부차이자위자재고설하등시아) 또한 이자는 자재하기 위해서 설법을 펼치니 어찌 방등 경전이 시와 같지 않겠는가?

所謂修習方等經典(소위수습방등경전) 그것은 이른바 방등경전을 닦아 익히는 것을 의미한다.

復次伊者爲斷嫉妬(부차이자위단질투) 또 '이자'라는 것은 질투를 끊으려는 것이니, 如除稗穢(여제패예) 그것은 마치 돌피를 뽑는 것 같아서(모든 더러운 것을 다 제하는 것과 같아서)

皆悉能令變成吉祥(개실능령변성길상) 모두 길상으로 변하도록 만들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是故名伊(시고명이) 이런 까닭으로 이자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이다.

-大盤涅槃經 8卷 如來性品篇

- ◆ '자재'는 자유자재라는 말의 줄임말을 의미
- ◆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무한한 자유를 의미
- ◆ 하지만 4차원 시공간을 전제로 한다면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 ◆ 때문에 '자재'는 시공간의 틀을 벗어난 세계관을 궁극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 여기서 자재천의 대범천왕은 '마혜수라'라 부르는 산스크리트 마하-이슈와라 (Mahā-Īśvara)를 음사한 말로 이 이름은 보통 힌두교의 최상위 신이자 시바파의 대표신인 시바를 가리키는 별칭이다.
- ◆ 그 의미는 '위대한 신'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의역해서 대자재천(大自在天)이라 흔히 부르는데, 이 외에도 대흑천(大黒天), 이샤나, 마히샤, 파슈파티, 파라메슈와라 등의 여러 별명이 있지만 한역된 이름인 마혜수라가 동아시아에서 훨씬 많이 통용되고 있다.

## 2. 세존이 열반 전에 비밀장을 제시한 까닭

“선남자여, 저 임금도 이렇게 비밀한 말이 있는데 여래가 어찌 없겠느냐. 선남자여, 그러므로 여래의 비밀한 말은 알기 어려운 것이니, 오직 지혜가 있는 이라야 나의 깊고 깊은 불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세간의 범부들로서는 믿을 수 없느니라(열반경 8권 여래성품 4-6).”

- ◆ 석가세존이 열반에 앞서 당신의 가슴 속 깊이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비밀한 뜻이 있음을 비로소 밝히시는 대목이다.
- ◆ 이 비밀한 뜻은 세 점 속에 감춰져서 때가 될 때까지 숨겨져 있어야 하므로 비밀장이라 한다.
- ◆ 이 열반경을 아무 선입견 없이 끝까지 읽어 나갈 때 세 점(.. 또는 ::)의 비밀이 드러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 동시에 이 열반경에서 호칭되는 '보살마하살(菩薩摩訶薩)'은 불타 석가모니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오실 또 다른 완성된 부처님을 지칭하고 있다.

諸比丘(제비구) 譬如大地(비여대지) 諸山(제산) 비구들이여, 마치 땅과 산의  
藥草爲衆生用(약초위중생용) 약초 약초가 중생을 위해 쓰이듯이  
我法亦爾(아법역이) 나의 법도 그렇게  
出生妙善甘露法味(출생묘선감로법미) 미묘하고 좋은 감로의 법미를 출생시켜  
而爲衆生種種煩惱病之良藥(이위중생종종번뇌병지양약) 중생들의 갖가지 번뇌병에 양약이  
되나니,  
我今當令一切衆生(아금당령일체중생) 내가 이제 일체 중생과  
及以我子四部之衆(급이아자사부지중) 나의 제자 사부대중으로 하여금  
悉皆安住祕密藏中(실개안주비밀장중) 모두 다 비밀장(秘密藏) 속에 안주케 하고  
我亦復當安住是中(아역부당안주시중) 入於涅槃(입어열반) 나도 그 안에 안주하여 열반에 들  
것이니라.

[涅槃經(열반경) 여래수명품]

- ◆ 여기서는 붓다가 열반 직전에 비밀장을 밝힌 마음이 표현된다.
- ◆ 붓다는 원이삼점(☺)이라는 형상을 거론하기 전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비구에 대한 안타까움을 절절하게 말하면서 비밀장이 '번뇌병에 양약'이 된다고 밝힌다.
- ◆ '미묘하고 좋은 좋은 감로의 범미를 출생'시키듯이 비밀장 속에 머물러야 함을 모든 중생과 제자인 사부대중에게 호소한다.
- ◆ 장사꾼의 비유처럼 진짜 보배의 성을 만나고도 기왓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비구들도 불법 보배 성을 만나고서 헛된 가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 ◆ 특히, 붓다는 수행자들의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한다.
  1. 비구들이 비록 출가는 하였지만 대승에는 사모하는 마음을 내지 못함
  2. 가사를 입었으나 마음은 대승의 깨끗한 법에 물들지 못함
  3. 걸식 하느라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되 대승의 법식은 아직 구하지 못함
  4. 머리카락과 수염은 깎았으나 바른 법으로 번뇌의 맺힌 것을 끊지 못함
- ◆ 이를 해결할 궁극적인 해결책을 비밀장 이자삼점으로 제시한다.

### 3. 비밀장의 요체

何等名爲祕密之藏(하등명위비밀지장) 어떤 것을 비밀장이라 하겠는가?

猶如伊字三點(유여이자삼점) 마치 '이(伊)'자의 세 점이

若並則不成伊(약병즉불성이) 나란히 있으면 '이'자가 되지 못하고

縱亦不成(종역불성) 세로로 있어도 성립되지 않거니와,

如摩醯首羅面上三目(여마혜수라면상삼목) 마혜수라(摩醯首羅) 얼굴의 세 눈과 같아야만

乃得成伊三點(내득성이삼점) 비로소 '이'자의 세 점이 되고

若別亦不得成(약별역부득성) 만약 (이 세 점이 서로) 다르다면 이루지 못하듯이,

我亦如是(아역여시) 나도 그와 같아서



解脫之法亦非涅槃(해탈지법역비열반) 해탈의 법도 열반이 아니고,  
如來之身亦非涅槃(여래지신역비열반) 여래의 몸도 열반이 아니고,  
摩訶般若亦非涅槃(마하반야역비열반) 마하반야도 열반이 아니며,  
三法各異亦非涅槃(삼법각이역비열반) 세 가지 법이 각각 달라도 열반이 아니니,  
我今安住如是三法(아금안주여시삼법) 나는 지금 이러한 세 법 안에서  
爲衆生故(위중생고)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名入涅槃(명입열반) 열반에 든다고 말함은  
如世伊字(여세이자) 세상의 '이'자 같은 것이니라.”

[涅槃經(열반경) 여래수명품]

- ◆ 여기에는 횡수(橫豎)를 상징하는 극적인 표현이 제시
- ◆ 비밀장(秘密藏)이라고도 불리는 ☺ 원이삼점이 그것
- ◆ 열반에는 삼사(三事)인 법신, 반야, 해탈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모양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 같지 않지만 별개의 것은 아니다.

法身體者(법신체자) 법신의 본체는

佛地所有一切功德(불지소유일체공덕) 부처님의 경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공덕이다.

其體無二(기체무이) 그 본체는 둘이 아니고

唯一法界(유일법계) 오직 한 법계일 뿐이다.

法界舉體(법계거체) 법계의 본체 전체를 들어서

以成萬德(이성만덕) 만덕을 이루므로  
萬德之相(만덕지상) 만덕의 모습은  
還同法界(환동법계) 그대로 법계와 동일하고  
法界之性(법계지성) 법계의 성품은  
不異萬德(불이만덕) 만덕과 다르지 않다.

隨舉一德(수거일덕) 한 공덕을 들면  
無所不遍(무소불편) 두루하지 않은 데가 없다.

如是一切白法圓滿(여시일체백법원만) 이와 같이 모든 깨끗한 법이 원만하여  
自體積集(자체적집) 자체에 쌓여 있기 때문에  
故名法身(고명법신) 고로 법신이라고 한다.

其義具顯金剛身品(기의구현금강신품) 그 뜻은 이 경의 [금강신품]에 잘 나타나 있다.

般若體者(반야체자) 지혜의 본체란

卽此法身性自明達(즉차법신성자명달) 곧 이 법신의 성품이 스스로 밝고 통달하여서

無所不照(무소불조) 비추지 않는 데가 없으므로

故名般若(고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다.)

解脫體者(해탈체자) 해탈의 본체란

卽此法身離諸繫縛(즉차법신리저계박) 곧 이 법신이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

無所障礙(무소장애) 아무런 장애도 없으므로

故名解脫(고명해탈) 고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다.

三德實殊不可說一(삼덕실수불가설일) 세 덕은 실제로 특수해서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可相一味不說異(가상일미불설이) 세 덕의 모습은 한맛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

以之故 名如來祕藏(이지고 명여래비장) 그런 까닭으로 여래의 비장이라고 한다.

是謂三法之體相也(시위삼법지체상야) 이것을 삼사의 체상이라고 말한다.

次明建立三事所由(차명건립삼사소유) 다음으로 삼사를 건립하게 된 까닭을 밝히려고 한다.

一體萬德無非涅槃(일체만덕무비열반) 일체 온갖 공덕은 열반이 아닌 것이 없다.

所以偏說此三法者(소이편설차삼법자) 오로지 이 세 가지를 들어 편을 드는 이유는

以對生死三種患故(이대생사삼종환고) 생사의 세 가지 근심을 대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何者 生死萬累不出三種(하자 생사만계불출삼종) 왜냐면 생사의 온갖 장애는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所謂 苦果五陰身故(소위 고과오음신고) 말하자면 고뇌의 과보가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몸이기 때문에

建立法身(건립법신) 법신을 세우는 것이고.

以除煩惱迷惑法故(이제번뇌미혹법고) 번뇌에 미혹된 법을 제거하기 위한 까닭으로

建立般若(건립반야) 반야를 세우는 것이고.

離諸業(業)障繫縛因故(리제업장계박인고) 모든 업장에 얽매이는 원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建立解脫(건립해탈) 해탈을 세우는 것이다.

又復對彼小乘(우부대피소승) 또한 저 소승의 견해에 대치하려고

入涅槃時 灰身滅智(입열반시 회신멸지) '열반에 들어갈 때 몸은 재가 되고 지혜는 소멸한다'라는 것에

故說法身常存(고설법신상존) 고로 법신은 늘 존재하고

大智不滅(대지불멸) 대지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

對彼小乘(대피소승) 또 저 소승의 견해에 대치하려고

身智存時(신지존시) "몸과 지혜가 남아 있을 때에는

未免苦報習氣繫縛(미면고보습기계박) 고뇌의 과보와 습기의 얽매임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견해

故就身智立眞解脫(고취신지립진해탈) 몸과 지혜를 들어서 참된 해탈을 건립하는 것이다.

『열반종요』涅槃宗要, 원효

- ◆ 오음(五陰)의 몸은 오온(五蘊), 즉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이라는 물리적, 심리적, 정신적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 몸을 가리킨다.
- ◆ 이것은 오온이라는 개념이 주위 세계와 연기되어 있는 흐름이라는 측면을 말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개체 단위의 고정된 정체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을 표현한다.
- ◆ 하지만 모든 존재가 즉시 공이라고 보는 즉공관(卽空觀)이 아니다. 어떤 물질적 실체는 존재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강하다.
- ◆ 물질적 구성을 분석하여 공이라고 보는 석공관(析空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자로서 세계를 보고 있다.
- ◆ 석공관에 기초한 세계관에서 열반에 이르는 길은 회신멸지로 귀결된다. 이는 소승에서 열반을 몸이 재가 되고 알음알이가 없어지는 회신멸지(灰身滅智)로 바라보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 4. 전체와 부분 / 열반과 법신, 반야, 해탈

- ◆ 법신은 진여(眞如)로 진리 그 자체이며, 온 우주가 하나의 법계이며 장을 의미한다.
- ◆ 오음의 몸과 회신멸지를 대치(對治)하기 위해서 법신을 세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계관의 전변을 의미한다.
- ◆ 입자중심의 세계관에서 장 중심의 세계관으로 인식을 전변하는 것이 바로 '법신'을 의미한다.
- ◆ 횡수론 가운데 수론의 위상은 세로, 수직으로 열리되 위아래가 동시장을 이루는 것을 의미
- ◆ 이는 인식의 차원이 변화하여 온 법계가 일미평등한 진여의 법신 즉 삼계가 경계 없는 장을 의미
- ◆ 원효는 "반야는 그 성품이 스스로 환하게 통달하여 비추지 않는 데가 없는 것"이라 말한다.
- ◆ 이는 세로로 인식의 차원이 법신에 이를 때에만 발휘되는 인식주관이 갖게 되는 인식시야를 의미

- ◆ 반야는 횡수론의 횡론에 해당하는데 기존 공간관이 해체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 ◆ 좌우로 무한하게 확장된 시야는 비국소성을 획득하고 온 법계를 공동장으로 인식한다.
- ◆ 인식의 차원이 법신에 이를 때 인식주관은 모든 얽매임을 벗어나 아무 장애되는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른다. 해탈은 이런 자재한 상태를 의미한다.
- ◆ 인간의 시야가 공간적으로 받게 되는 제약은 삼차원 공간관이라는 경계에서 비롯된다.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이 해탈이다. 횡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식된 세계에서 인식주관의 시야가 인식대상의 상태에 따라 경계를 만들지 않을 때 가능해진다.

- ◆ 원효 역시 궁극적인 수행의 최종단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뚜렷하다. [열반경종요]는 원효의 그 부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높은 이해의 수준을 보여준다.
- ◆ 원효는 열반과 법신, 반야, 해탈의 관계를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서 조명한다. 한 성품으로 말하자면 열반은 곧 전체적인 것[總]으로 이(☺ 伊)자에 비유된다.
- ◆ 삼법(법신, 반야, 해탈)은 부분적인 것[別]으로 세 개의 점에 각각에 비유
- ◆ 여기서 '동체대비'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 법신, 반야, 해탈을 ... 처럼 횡으로 나란히 놓아서도 안 되며, :처럼 수로 나란히 세워 놓아도 안 된다.
- ◆ 원이삼점(☺ )에서 원으로 세 점을 감싼 것은 그것들이 동체(同體)임을 나타낸다.

- ◆ 만약 법선, 반야, 해탈을 ...처럼 가로로 나란히 표시하면 인식의 차원이 변하지 않은 채 좌우 양적인 팽창만 이뤄진다.
- ◆ 그것은 아무리 확장해도 3차원 공간관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공간이 국소적으로 나누어지듯이 ... 은 좌우의 차이가 나고 삼법 사이에 차별이 나타난다. 삼법이 똑같이 원만해야 열반을 이룰 수 있다. 궁극적인 해탈은 원돈지관의 원리 속에 밝고 고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원돈'에서 '원'을 이룰 수 없다.
- ◆ 삼법을 :처럼 수로 표시하면 시간적으로 전후의 차이가 난다. ..처럼 가로가 함께 열릴 때는 동시장, 공동장이 이루어져 세로 방향의 위아래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전후 차이가 없어지지만 가로 방향이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시간성의 경계가 살아나 전후의 차이가 나게 된다. '원돈'에서 '돈'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된다.
- ◆ 이 경우 삼법이 비록 뛰어나고 열등한 것이 없더라도 동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열반을 이룰 수 없기에 그런 만큼 삼법을 :로 표현하지 않았다.

-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자삼점을 둘러싼 원의 의미이다. 세 점은 별도로 떨어지면 전체를 이루지 못 한다. 마치 세 개의 점이 비록 나란히도 세로로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각자 다른 곳에 있으면 한 글자를 이룰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 로 표현한다.
- ◆ ☺ 는 삼법이 일미로써 동체(同體)를 이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 열반은 삼법이 동체를 이룰 때 이뤄진다. 반야, 법신을 이루어 해탈에 이를 때 삼법이 동체가 되어 원이라는 전체는 일미를 이루고 열반을 이룬다. 즉, ∴이 한 점 · 이 되면서 동시에 온 우주로 열린다.
- ◆ 이 경지에서는 공간적인 국소성과 시간적인 인과성, 한시성을 뛰어넘어 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 ∴를 둘러싼 ○은 동시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은 삼법이 원만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체라는 의미도 포함하는데 동체라는 것은 ∴이 · 이 되면서 ○으로서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 밤하늘에 보이는 한 점은 그 자체로 우주를 의미하며 이때 한 점은 동시적인 온 우주장이 될 수 있다.
- ◆ 원효는 원이삼점의 핵심을 [열반종요]에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데 삼법이 동체라는 것은 법신일 때 반야와 해탈이 가능하고, 반야와 해탈이 이루어질 때 법신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반야와 해탈의 본체는 법신이고 법신의 작용은 반야와 해탈이다.
- ◆ 법신, 반야, 해탈은 그 의미가 각각 달라서 하나라고 말할 수 없다.
- ◆ 하지만 그 모습은 일미(一味)여서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다.
- ◆ '마치 달려가는 기차에서 밖으로 돌을 던지면 어디로 떨어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다음 세 답변이 모두 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답변은 세 가지 경우, 1)첫 번째 돌은 기차의 진행방향으로 떨어지는 경우이고  
 2)두 번째 기차는 수직하방으로 자유낙하하는 경우이며 3)마지막으로 기차의 후방으로 떨어지는 경우로 대답할 수 있다. 이 세가지 경우가 모두 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모순에 빠질 수 있지만, 세 가지 경우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모두 참일 수 있다.

- ◆ 법신과 반야와 해탈의 세 경우도 사실은 열반의 각각 다른 차원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 ◆ 열반이 가능하려면 괴로움의 과보를 극복해야 되는데 불성을 갖춘 법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며, 어두움의 미혹을 제거해야 하는데 반야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업으로 얽매어진 삶을 끊어내려면 해탈이 있어야만 한다.
- ◆ 법신, 반야, 해탈은 다른 성격이지만 결국 열반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하나를 갖춰야 하는 것은 나머지 두 가지를 갖추는 것이고 각각의 요소는 모두 마찬가지로 다.
- ◆ 법신과 반야와 해탈 이 셋을 모두 갖추어야만 열반을 이룰 수 있으며 각각의 요소는 모두 열반이다.
- ◆ 열반이 없다면 생사를 없애지 못하기에 법신을 말할 수 없고, 반야가 없다면 번뇌에 빠질 것인데 법신을 말할 수 없으며, 해탈이 없다면 업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에 법신이 될 수 없다.

- ◆ 각각은 전체이며 또한 부분이며 막힘없이 통한다.
- ◆ 一微塵中含十方 일미진중함시방 한 티끌속에 시방세계를 머금었고,  
一切塵中亦如是 일체진중역여시 일체의 티끌 속도 또한 다시 그러해라.
- ◆ 이처럼 은 법신, 반야, 해탈이 동체로서 한 점이면서 동시에 무한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 법신이 수직으로 무한대로 열리면서 시간적인 경계를 벗어난 동시장을 이루고 반야와 해탈이 수평으로 무한대로 열리면서 공간적인 국소성을 벗어난 공동장을 이루어 횡수(橫豎)에 걸쳐 우주적인 동시장, 공동장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 5. 붓다의 절실함을 통해서 수행의 참모습을 깨달아야 한다.

- ◆ 붓다가 열반 직전에 비밀장을 굳이 이라는 형상을 거론하면서 밝힌 이유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 ◆ 붓다는 이를 언급하기 전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비구에 대한 안타까움을 절절하게 밝힌다.
- ◆ 붓다는 수행의 궁극적 경지인 열반과 그 삼덕(三德)인 해탈, 법신, 반야를 대승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단 하나의 상징으로 집약하여 표현한 것이다.
- ◆ 붓다가 거론한 대승의 법은 인식의 차원과 그 근거인 인식틀이 전변하는 것을 전제한다.
- ◆ 3차원 공간관의 인식틀에서 공(空)을 추구하는 장교(藏教)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법신 · 반야 · 해탈은 '입자'의 개념으로, 개별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셋을 모두 떠올리더라도 기존의 공간성, 시간성의 인식틀은 바뀌지 않고 그 결과 인식의 차원은 변화하지 않는다.

- ◆ 이자삼점은 열반의 삼덕(三德)이고 열반은 이 삼덕을 아우르는 한 차원 높은 '장'의 개념인 만큼,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이라는 인식틀을 해체한 일미평등의 인식틀인 원교(圓敎)로서 바라봐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 형상을 띠는 이자삼점은 동체로서 ∙ 이면서 ○로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 여기서 ∙ 은 ∴의 중심으로서 ∴ 보다 한 차원이 높다. ∴ 가 입자라면 ∙ 는 ∴를 아우르는 장(場)이다.
- ◆ 이는 마치 우리가 피라미드 수련 도입부에서 양손 노궁혈에 나를 떠올리고 다시 떠올려진 나의 노궁혈에 또다른 나를 떠올리며 상상력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
- ◆ 상상력을 통해 차원은 무한대로 변한다. 이때 떠올려진 '나'는 '나'이면서 동시에 이미 '나'라는 고정된 실체를 벗어난 해탈의 상태이며 끝없이 의미의 기둥을 이루면 우주와 동일하게 확장되는 상태는 '법신'에 다름 아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해체하고 확장하는 인식은 '반야'가 된다.

- ◆ 삼점과 한점이 같은 차원이라면 ∴ 은 · 가 될 수 없다. 설사 중심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 은 ∴ 의 산술적, 기계적 평균은 되겠지만 여전히 ∴ 은 개별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 은 아무 의미가 없는 중심일 뿐이다.
- ◆ · 이 ∴ 보다 한 차원이 높을 때는 전자가 후자를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이 때 · 는 동시에 ○로서 무한대로 확장한다.
- ◆ 이러한 대승적 인식이 중도(中道)이다. 중도는 각 부분의 균형 조화를 이루는 것이면서 동시에 각 부분보다 차원이 높아져 그들을 포괄하는 전체로서 장(場)에 해당한다.
- ◆ 중도의 핵심은 오히려 조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원에 있다. 법신 · 반야 · 해탈이 조화를 이룰 때 그 개별의 상태는 하나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전체라는 차원으로 전변된다. 그것이 바로 열반이라는 것이다.

- ◆ ㉓ 은 앞에서 살펴 본 횡수론과 일미관행에서 짚었던 문제를 상징으로 집약하여 제시한 것
- ◆ 비밀장이라는 용어는 언어라는 한계 때문에 평범한 언술로는 열반의 핵심을 설명할 수 없기에 오랜 시간을 고심할 수밖에 없었던 세존의 고민이 담겨져 있다.
- ◆ 3차원 공간관의 인식틀, 장교(藏敎), 소승에서는 모든 존재가 공간성과 시간성, 인과성으로 파악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 차원 높은 현상인 대승의 지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체하는 방법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 ◆ 아울러 '지금, 여기에서' 표면적인 언어적 표현으로는 수련의 참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기에 쳇바퀴 돌 듯 설명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고통과 맥락을 같이 한다.
- ◆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성의없이 강의가 되풀이 되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갈 것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진동과 파장이 달리 전달될 것이다. 오직 벼랑 끝에서도 불퇴전의 한 걸음 속에서만 느낄 수 있겠지만 .....